

대학생들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자기효율성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

—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

장 휘 숙 · Jacqueline Lerner

충남대학교 · Michigan State University

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비교하고 청년후기의 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직업, 종교, 그리고 정치에 대한 개인의 자기효율성에서의 양국 대학생들을 비교한 동서양 문화간의 비교문화적 연구이다. 양국 대학생들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Rosenthal 등(1981)의 EPSI(Erikson Psychosocial Inventory Scale)를 사용하여 심리사회적 발달을 측정하고, 직업, 종교, 정치에 대한 개인의 자기효율성을 묻는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EPSI의 모든 하위척도(신뢰성, 자율성, 선도성, 근면성, 정체감, 친밀성)에서 더 높은 심리사회적 발달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미국 여학생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미국 남자대학생, 한국 남자대학생, 그리고 한국 여자대학생의 순으로 심리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통적인 성역할 정형과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학년이 높아질수록 심리사회적 발달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대조적으로 직업, 종교, 정치에 대한 대학생들의 자기효율성에서는 국가간에 차이가 없었고 고학년들이 저학년들보다 더 높은 자기효율성을 나타내었으며 직업과 정치에 대해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은 자기효율성을 나타내었다. 동시에 높은 자기효율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낮은 자기효율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보다 정체감 하위척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음으로써 청년후기에 높은 수준의 정체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직업, 종교, 정치에 대한 개인의 자기효율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율성이 그리고 미국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정체감과 근면성이 3가지 자기효율성에 대해 가장 큰 설명량을 갖는 EPSI 요인들이었다.

핵심어 : 심리사회적 발달 · 자기효율성

I. 문제의 제기

Erikson(1968)이 제안한 8단계의 전생애적 심

리사회적 발달은 심리역사적 혹은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다고 가정되기 때문에 비교문화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주제이다. Erikson이 제안한대로 각 발달단계에서 경험

하는 심리사회적 위기는 사회적 환경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한 개인의 심리적 노력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이한 문화는 상이한 환경적 요구를 개인에게 부과할 것이므로 개인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일찌기 Cote와 Levine(1988, 1989)이나 Adams와 Montemayor(1983)와 같은 연구자들은 개인의 정체감 발달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의 영향을 다룬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바 있다.

지금까지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 관심을 가진 많은 연구자들 (Marcia, 1966, 1980; Grotevant & Cooper, 1985; Tzuriel & Ben-Moshe, 1992)은 청년기의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의 시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그 이유는 Erikson이 청년기에 이르면 아동기까지의 적응양식이었던 동일시의 유용성이 약화되고 적절한 정체감 형성이 시작된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특히 Marcia(1966, 1980)는 청년후기를 직업이나 이념적 문제에 몰두하는 시기로 가정한 Erikson의 이론을 따라 대학생들의 정체감 상태를 구분하였다. 그는 면접법을 사용하여 위기와 전념의 두가지 차원에 따라 직업선택과 종교적 및 정치적 이념에 대한 대학생들의 정체감 상태를 연구하였다. 개인의 정체감 상태를 정체감 성취와 정체감 혼란으로 구분한 Erikson과는 대조적으로 성취와 혼란 사이에 유예와 유실의 정체감 상태를 배치한 Marcia는 대학생의 정체감 성취를 직업목표를 설정하고 정치적, 개인적 이념을 확립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Marcia와 후속 연구자들의 정체감 상태에 관한 연구들은 Erikson이 제안한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의 다섯번째 단계인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의 위기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사회적 발달의 전체적 양상을 파악할 수 없는 제한점을 지닌다. 주지하는 대로 Erikson 이론은 점성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 단

계들은 선행단계들에서의 위기의 해결을 바탕으로 할 뿐만아니라 선행단계들에서 해결되지 못한 위기의 잔여물들이 후속단계에서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의 단계에 국한된 자아정체감 연구로써 개인의 정체감 성취여부를 규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Erikson은 그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는 궁극적으로 자아정체감 확립의 과정이라고 제안하고 완전한 의미의 자아정체감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자아통합 대 절망의 단계에서 완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의 처음 6개 단계에 기초하여 6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Rosenthal, Gurney, Moore(1981)의 EPSI(Erikson Psychological Stage Inventory)를 사용하여 한국 대학생과 미국 대학생들의 심리사회적 발달 정도를 비교해 보려고 한다. 한국과 미국은 각기 동양과 서양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만아니라 역사나 전통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Marcia와 후속연구자들이 중요시한 직업, 종교, 그리고 정치에 대한 대학생들의 자기효율성(self-efficacy)에서도 양 문화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자기효율성이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서(Bandura, 1989) 대학생들이 Erikson 발달단계중 5번째 단계인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업, 종교, 그리고 정치에 대한 높은 자기효율성을 지닐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체감 형성과정과 직업생애 발달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Blustein, DeVenis 그리고 Kidney(1989)는 개인의 정체감 발달과 자기효율성 사이에 높은 상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 바 있다.

II. 관련연구의 개관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개인의 자아정체감이나 심리사회적 발달 정도를 비교연구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 서봉연(1988)은 Dignan(1965)의 자아정체감 척도를 사용하여 한국의 중등학교 학생들과 대학교 재학생들 및 구 서독의 12세부터 26세까지의 각급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체감의 발달패턴,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 정체감 하위구조의 발달패턴 및 정체감 발달에서의 남녀 성차를 비교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서독 청소년과 청년들이 한국의 동년배들보다 연구된 모든 연령집단(12~13, 14~15, 16~17, 18세 이상)에서 유의하게 높은 정체감 점수를 획득하였고 정체감의 발달패턴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두 나라의 연구대상자들 모두가 연령증가와 함께 정체감 척도 점수에서 증가를 나타내었으나 독일 청소년들은 정체감 위기를 의미할 수 있는 하강현상 없이 계속 상승곡선을 나타낸 반면 한국 청소년들은 예외없이 14~15세에 하강현상을 보임으로써 정체감 위기 증후를 나타내었다. 또한 모든 연령집단에서 독일 남자의 점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독일 여자, 한국 여자, 그리고 한국 남자의 순이었으나 14~15세에서만 한국 남자의 정체감 점수가 더 높은 양상을 나타내었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독일 남자와 한국 남자 그리고 독일 여자와 한국 여자의 연령에 따른 발달패턴이 유사하여 두나라의 동성들 사이에서 정체감 발달의 유사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Marcia(1966)의 정체감 상태에 기초하여 가치관 영역과 직업영역에 대한 한일 대학생들의 정체감 발달의 차이를 연구한 박아청(1984)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대학생들이 일본

대학생들보다 가치영역과 직업영역의 모두에서 정체감 성취를 획득한 비율이 유의하게 더 높고 혼란이나 유예의 비율이 유의하게 더 낮았다. 그러므로 한국 대학생들이 신념이나 가치관,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그리고 직업에 대해 보다 더 확고한 생각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연구자는 한일 양국 대학생들의 이와같은 정체감 상태에서의 차이를 한국 대학생들은 입학정원 및 졸업정원과 같은 엄격한 통제속에서 학업에 매달리는 상황에 있는 반면에, 일본의 대학생들은 비록 격렬한 입시경쟁을 겪기는 하지만 입학이후에는 대학 4년 동안을 유유자적하면서 보낼 수 있는데 기인된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박아청의 연구는 한일 양국의 남자 대학생들은 연령증가와 함께 정체감 성취의 비율에서 현저한 증가를 나타내었으나 양국의 여대생들 사이에서는 학년증가와 정체감 성취사이에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동시에 일본 대학생들은 가치관 영역에서 1, 2학년의 저학년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정체감 성취의 범주에 더 많이 분포하였으나 3, 4 학년의 고학년에서는 유의한 성차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대학생들은 가치관 영역에서 저학년과 고학년 모두에서 남학생들의 정체감 성취비율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유예와 혼란에서는 여학생들의 점수가 남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직업영역에서는 양국 모두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정체감 혼란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결론적으로 일본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성차가 뚜렷하지 않았으나 한국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남학생들이 유의하게 정체감 성취상태에 더 많이 분포함으로써 명백한 성차를 나타내었다.

한편 Tzuriel(1992)은 복수 인종사회에서 살고 있는 Israeli-Arab 청소년들과 Israeli-Jewish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발달을 비교연구하였다. 연구자는 두 민족집단은 상이한 사회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조건하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자아정체감 발달에서 상이한 패턴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였다. Marcia의 자아정체감 상태의 구분과는 상이하게 Rasmussen(1964)과 Wessman 및 Ricks(1966)의 자아정체감 척도에서 채택된 문항을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7개의 양극적이고 계속적인 특성을 지닌 AEIS(Adolescent Ego Identity Scale)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두 문화권의 청소년들은 검사의 구성요인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소수 민족집단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조건에서 불리한 여건에 처해있는 데도 불구하고, Arab 청소년들은 7가지 요인(solidity and continuity, commitment and purposefulness, social recognition, physical identity, meaningfulness-alienation, self-control, genuineness) 중 3가지 요인(commitment and purposefulness, solidity and continuity, self-control, genuineness)에서는 Jewish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고 3가지 요인(social recognition, physical identity and meaningfulness-alienation)에서는 더 낮은 점수를 나타냄으로써 연구자는 Arab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은 성공적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시에 연구자는 Jewish 청소년들이 3가지 요인에서 Arab 청소년보다 더 낮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군복무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Arab 청소년들과는 대조적으로 Jewish 청소년들은 2~3년의 군복무 기간이 그들의 유예기간을 연장시키므로써 3가지 요인에서 유의하게 낮은 정체감 성취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solidity and continuity 요인에서 두 민족 집단 모두 성차를 나타내었으나 Jewish 집단은 소년들이 소녀들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 Arab 집단은 소녀들이 소년들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므로써 두 집단간에 상반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commitment and pur-

posefulness 요인에서는 Jewish 소년들이 소녀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나 Arab집단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동시에 social recognition 요인에서는 민족집단간에 차이가 있었을 뿐 어느 집단에서도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EPSI(Erikson Psychological Stage Inventory)를 제작한 Rosenthal 등(1981)은 남성들이 전통적 남성특성인 자율성과 선도성 요인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 여성들은 대표적 여성 특성인 친밀성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보고하고 남성의 성역할 특성인 도구성과 여성의 성역할 특성인 표현성이 확인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대조적으로 Marcia의 정체감 상태를 기초로 최근에 수행된 Willemsen과 Waterman(1991)의 연구는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들보다 이념 영역과 대인관계 영역 양자에서 정체감 성취를 획득한 사람들이 유의하게 더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정체감 발달과 관련하여 Marcia는 개인의 정체감 상태는 유동적이며 발달적 속성을 갖는다고 제안하였고 이것은 후속연구들(Archer & Waterman, 1983; Adams & Montemayer, 1988; Adams, Markstrom & Abraham, 1987)에 의해 확인되었다. 국내에서 수행된 서봉연(1988)의 연구에서도 연령에 따른 발달현상이 확인된바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EPSI 점수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며 성과 학년에 따라서도 EPSI 점수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동시에 Marcia와 후속 연구자들이 청년후기의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의 시기에 중요시한 직업, 종교 그리고 정치에 대한 양국 대학생들의 자기효율성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자기효율성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고통을 더 잘 인내할 수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쉽게 중지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기술

훈련 상황에서 보다 쉽게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 (장휘숙, 1993 재인용). 그러므로 직업, 종교, 정치에 대한 자기효율성이 높은 개인들이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의 위기를 긍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정체감 성취를 획득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은 심리사회적 발달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가?
2.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은 개인의 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직업, 종교 그리고 정치에 대한 자기효율성에서 차이가 있는가?
3. 개인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직업, 종교 그리고 정치에 대한 자기효율성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Ⅲ. 연구방법

연구대상

대전의 C대학교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남녀학생 442명과 미국의 Michigan 주립대학교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남녀학생 229명이 표집되었다. 한국 대학생들의 평균연령은 20.46(남, 21.10; 여, 19.18)세 그리고 미국 대학생들의 평균연령은 19.51(남, 19.73; 여, 19.28)세였다. 양국 대학생들의 성별, 학년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여기서 저학년은 1, 2학년을 의미하고 고학년은 3, 4학년을 의미한다.

표 1. 성과 학년에 따른 한미 양국 대학생들의 분포

	남		여		N
	저학년	고학년	저학년	고학년	
한국	128	93	100	121	442
미국	66	47	59	57	229

검사의 실시는 한국 대학생들에게는 1994년 4월에 그리고 미국 대학생들에게는 1994년 10월에 이루어졌다. 대학 신입생들의 입학식이 한국에서는 3월에 그리고 미국에서는 9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국 대학생들은 대학 입학후 거의 동일한 시기에 본 연구의 대상자로서 검사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사도구

양국 대학생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Rosenthal, Gurney, & Moore (1981)의 EPSI(Erikson Psychosocial Inventory Scale)를 한국 학생들에게는 번역하여 사용하였고 미국 학생들에게는 원문 그대로를 사용하였다. 비교문화적 연구에서는 양 문화에서 동일한 척도를 사용했는가가 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제1연구자가 한글로 번역한 것을 Michigan 주립대학의 박사과정에 유학중인 한국 학생이 영어로 다시 번역하고 공동연구자가 확인 하므로써 한글 번역판이 원 검사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PSI는 Erikson 발달단계의 처음 6개 단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는 하나의 하위척도로서 모두 6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동시에 각 하위척도는 12개의 문항을 포함하며 그 중 6개의 문항은 각 단계의 심리 사회적 위기의 성공적 해결을 그리고 나머지 6개는 성공적이지 못한 해결을 반영하도록 조직되었다.

검사의 각 문항들은 Likert type의 5점 척도로서 거의 항상 그렇다(5)에서 거의 항상 그렇지 않다(1)까지의 5가지 반응 중 하나에 체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미 양국 대학생들에게 실시된 EPSI의 하위척도별 상호상관은 표 2와 같다. 모든 요인들이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상호상관

표 2. EPSI 하위척도들 사이의 상호상관

하위척도	국가	하 위 척 도				
		2	3	4	5	6
1. 신뢰성	한국	0.507	0.468	0.434	0.590	0.532
	미국	0.646	0.691	0.618	0.700	0.635
2. 자율성	한국		0.779	0.717	0.717	0.465
	미국		0.751	0.636	0.752	0.446
3. 선도성	한국			0.675	0.618	0.508
	미국			0.685	0.665	0.555
4. 근면성	한국				0.686	0.363
	미국				0.690	0.507
5. 정체감	한국					0.499
	미국					0.523
6. 친밀성	한국					
	미국					

을 나타내기 때문에 양 문화에서 사용된 EPSI는 신뢰롭다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은 이전 단계의 발달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하위척도들 사이의 상호상관이 높아야만 이론적 가정과 일치할 수 있다.

직업, 종교, 정치에 대한 개인의 자기효율성은 각 영역에 대해 2개의 질문을 구성함으로써 전체 6개 문항에 응답하게 하였다. 예를들면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얼마나 확신하십니까?”와 같은 문항에 대해 개인의 확신 정도를 0에서 10까지 등간척도 상에 표시하게 하여 그것을 그대로 점수화하였다.

3가지 영역의 자기효율성을 묻기 위해 제작된 문항들은 본 연구의 제1연구자에 의해 영어로 번역되고 그것을 공동연구자가 수정하였다. 영어로 수정된 문항을 제1연구자가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원점사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였다.

자료분석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하위척도들 사이의

상호상관을 국가별로 계산하였다. 또한 EPSI의 전체점수와 각 하위점사 점수를 국가(한국과 미국), 성(남, 녀) 그리고 학년(저학년과 고학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고 사후검증으로서 각 하위척도에 대한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직업, 종교, 그리고 정치에 대한 자기효율성 점수를 국가, 성, 학년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EPSI의 다섯번째 하위척도인 정체감 점수를, 중앙치를 기준으로 상하 집단으로 나누고 직업, 종교, 그리고 정치 자기효율성 점수의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하였다. 동시에 직업, 종교, 정치 자기효율성에 미치는 EPSI 하위척도들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 과

1.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의 심리사회적 발달

성과 학년에 따른 양국 대학생들의 EPSI 하위점사 점수와 전체점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같고 국가, 성 그리고 학년에 따라 MANOVA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3개의 독립변인 모두 유의한 주효과를 지니고 있었고 동시에 국가와 성, 국가와 학년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 표 5는 사후검증으로서 각 하위척도별 EPSI 점수를 3원 변량분석한 결과이다. 신뢰성, 자율성, 선도성, 근면성, 정체감 그리고 친밀성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국가간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표 3을 참고하면, 미국 대학생들이 6개의 모든 하위척도에서 한국 대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어 더 높은 심리사회적 발달을 이루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3원 변량분석 결과에 의하면, 성의 주효과는 자율성과 친밀성에서의 유의한 차이에 기인된 결과

표 3.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EPSI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한 국				미 국			
		남		녀		남		녀	
		저학년	고학년	저학년	고학년	저학년	고학년	저학년	고학년
신뢰성	평균	3.15	3.50	0.17	3.21	3.54	3.58	3.57	3.62
	표준편차	0.52	0.43	0.58	0.53	0.56	0.59	0.61	0.52
자율성	평균	3.38	3.01	3.31	3.55	3.99	4.05	3.93	4.05
	표준편차	0.61	0.50	0.53	0.59	0.56	0.49	0.56	0.51
선도성	평균	3.30	3.61	3.21	3.36	3.89	3.84	3.79	3.94
	표준편차	0.58	0.54	0.58	0.60	0.50	0.49	0.55	0.50
근면성	평균	3.21	3.63	3.14	3.39	3.92	3.97	3.90	4.18
	표준편차	0.58	0.52	0.65	0.62	0.59	0.58	0.60	0.45
정체감	평균	3.16	3.44	2.93	3.06	3.68	3.38	3.73	4.04
	표준편차	0.62	0.54	0.64	0.63	0.69	0.64	0.69	0.54
친밀성	평균	3.17	3.51	3.18	3.18	3.79	3.69	4.11	4.06
	표준편차	0.44	0.44	0.42	0.48	0.57	0.65	0.58	0.62

표 4. 국가, 성, 학년에 따른 EPSI의 MANOVA

	국가	성	학년	국가* 성	국가* 학년	성* 학년	국가* 성* 학년
Wilks's	0.6487	0.9607	0.9505	0.9252	0.9516	0.9855	0.9870
df	6/595	6/595	6/595	6/595	6/565	6/595	6/595
F	53.69	4.04	5.15	8.01	5.04	1.45	1.30
p	0.001	0.001	0.001	0.001	0.001	0.1	0.1

였다. 자율성에서 남자 대학생들의 EPSI 점수가 평균 3.70(SD=0.62) 그리고 여자 대학생들의 점수는 3.63(SD=0.62)으로서 남자 대학생들의 자율성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대조적으로 친밀성 점수는 여학생들이(M=3.50, SD=0.660) 남학생들보다(M=3.45, SD=0.66) 약간 높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5에 의하면, MANOVA에서 나타난 학년의 주효과는 친밀성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하위척도에서 학년의 주효과가 유의한 데 기인된 결과였다. 신뢰성, 자율성, 선도성, 근면성 그리고 정체감 하

위척도에서 고학년들이 저학년들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얻어 연령이 증가할수록 심리사회적 발달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친밀성에서도 고학년들이 저학년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표 5. 사후검증으로서 국가, 성, 학년에 따른 EPSI 요인의 F 값

	국가	성	학년	국가*성	국가*학년
신뢰성	49.77***	1.06	7.25**	3.25	2.74
자율성	104.79***	4.24*	20.24***	1.96	6.44*
선도성	109.2***	3.41	9.49**	3.17	3.57
근면성	170.35***	0.42	24.66***	6.54*	2.91
정체감	163.45***	3.63	18.42***	15.47***	0.24
친밀성	226.31***	4.55*	1.71	32.97***	8.01**

*p<.05, **p<.01, ***p<.001

또한 표 5는 근면성, 정체감, 친밀성에서 국가와 성 사이의 유의한 상호작용효과와 자율성과 친밀

성에서 나타난 국가와 학년 사이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제시한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을 참고하면 근면성, 정체감 그리고 친밀성의 하위척도에서 한국의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들보다 일관성있게 낮은 점수를 나타내는 데 반해 미국의 여자 대학생들은 남자 대학생들보다 일관성있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여자 대학생들이 대부분의 하위척도에서 남자 대학생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은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 여자 대학생들은 모든 6개 하위척도에서 남자 대학생들보다 더 낮은 점수를 획득함으로써 뚜렷한 성차를 나타내었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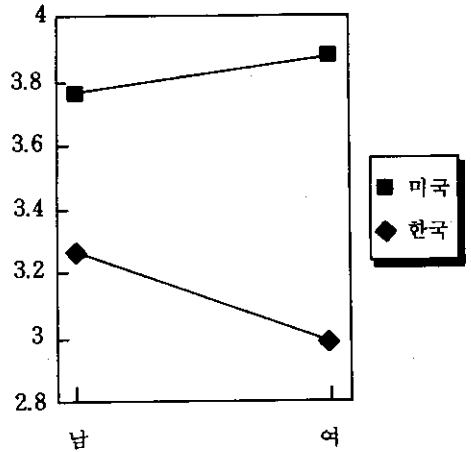


그림 2. 정체감의 국가*성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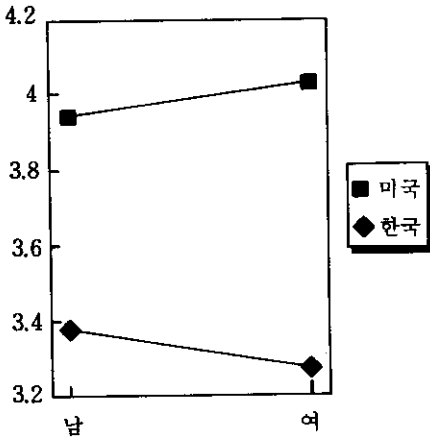


그림 1. 근면성의 국가*성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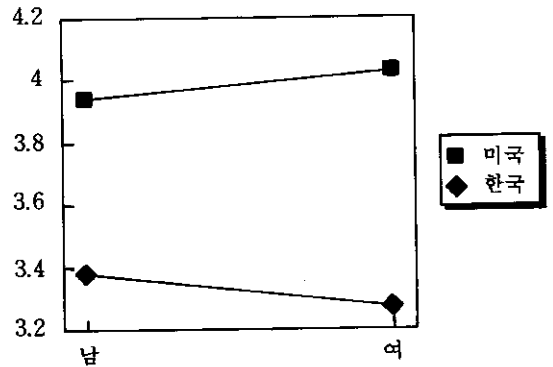


그림 3. 친밀성의 국가*성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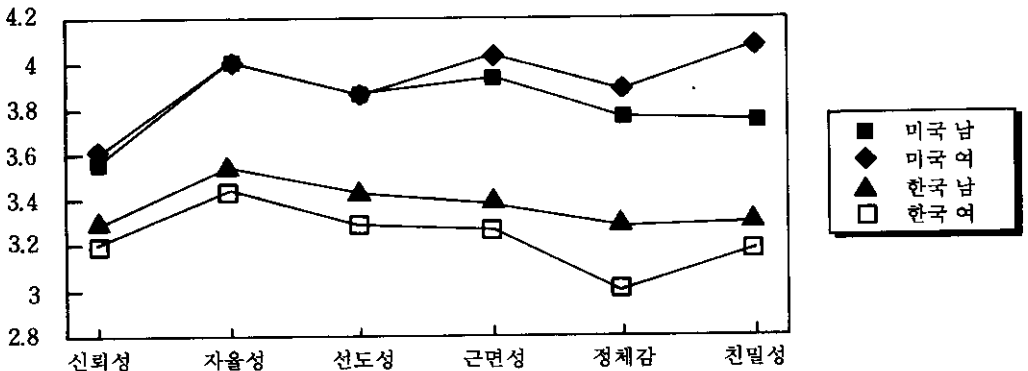


그림 4. 6개 하위척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 대학생 남녀의 점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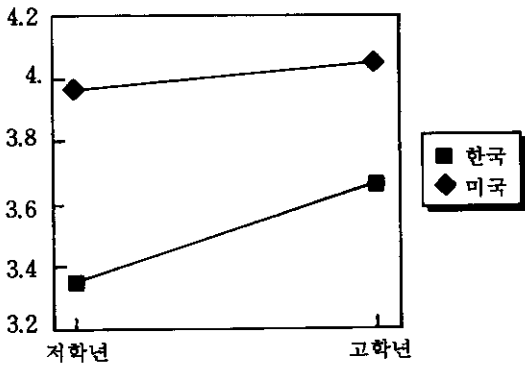


그림 5. 자율성의 국가*학년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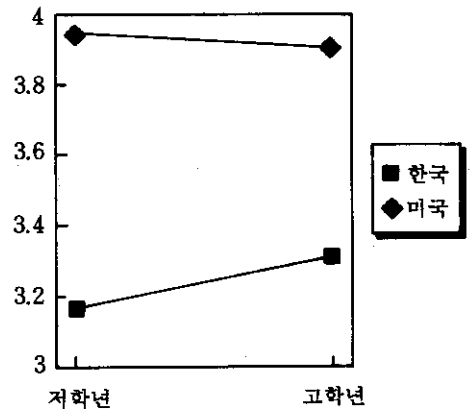


그림 6. 친밀성의 국가*학년 상호작용

자율성과 친밀성에서 나타난 국가와 학년 사이의 2원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5 및 그림 6과 같다. 한미 양국의 대학생들은 자율성의 하위척도에서는 고학년의 점수가 더 높으나 친밀성의 하위척도에서는 미국 대학생의 경우 한국 대학생들과는 상이하게 고학년에서 오히려 점수가 낮아지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친밀성을 제외하고 5개의 하위척도에서 학년의 주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림 7과 같이 한미 양국에서 고학년들의 점수가 저학년들의 점수보다 더 높은 현상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심리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자기효율성 점수

직업, 종교 그리고 정치에 대한 양국 대학생들의 자기효율성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6과 같고 국가, 성, 및 학년에 따라 3가지 자기효율성을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3가지 요인 모두에서 국가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유의한 학년 차이가 있었다. 다시말하면 양국 대학생들 모두에게 있어서 저학년보다 고학년들의 점수가 일관성있게 높아 학년이 증가할수록 직업, 종교, 정치에 대한 개인의 자기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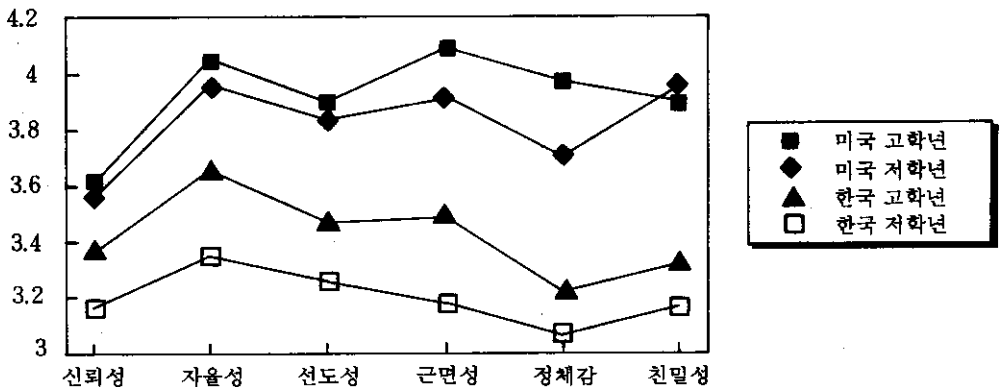


그림 7. 6개 하위척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의 저학년과 고학년들의 점수분포

표 6. 직업, 종교, 정치 자기효율성에 대한 양국 대학생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한 국				미 국			
		남		녀		남		녀	
		저학년	고학년	저학년	고학년	저학년	고학년	저학년	고학년
직업	M	15.93	16.42	15.12	15.21	15.63	16.00	14.86	16.16
	SD	2.36	1.87	2.20	2.32	2.59	2.58	2.94	2.43
종교	M	6.32	16.51	15.68	16.09	15.77	16.44	15.21	16.71
	SD	2.72	2.30	2.26	2.17	3.04	2.69	2.73	2.54
정치	M	14.86	15.62	14.16	14.47	15.51	16.04	13.97	14.77
	SD	2.44	2.62	2.51	2.51	3.07	2.79	2.81	2.94

표 7. 국가, 성, 학년에 따른 자기효율성 점수의 F값

국가	성	학년	국가* 성	국가* 학년	성* 학년	국가*성 *학년	
직업	0.00	9.36***	7.40**	2.93	1.69	0.43	2.58
종교	0.21	1.79	7.33**	0.56	2.40	1.08	0.13
정치	0.14	17.16***	4.55*	0.75	0.05	0.03	0.41

성의 주효과는 직업과 정치에서만 나타났다. 남학생들의 점수가 여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직업과 정치에 대해 더 높은 자기효율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정체감과 자기효율성의 관계

그림 8은 EPSI의 다섯번째 하위척도인 정체감 점수를, 한국과 미국 각각에 대해 중앙치를 기준으로 하여 상하집단으로 나누고 직업, 종교, 그리고 정치 자기효율성 점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또한 미국대학생들도 직업 자기효율성 $t=5.00(p<.001)$, 종교 자기효율성 $t=4.93(p<.001)$ 그리고 정치 자기효율성에 대해 $t=3.06(p<.01)$ 으로서 정체감 상하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양국의 t 검증 결과, 한국대학생들은 직업 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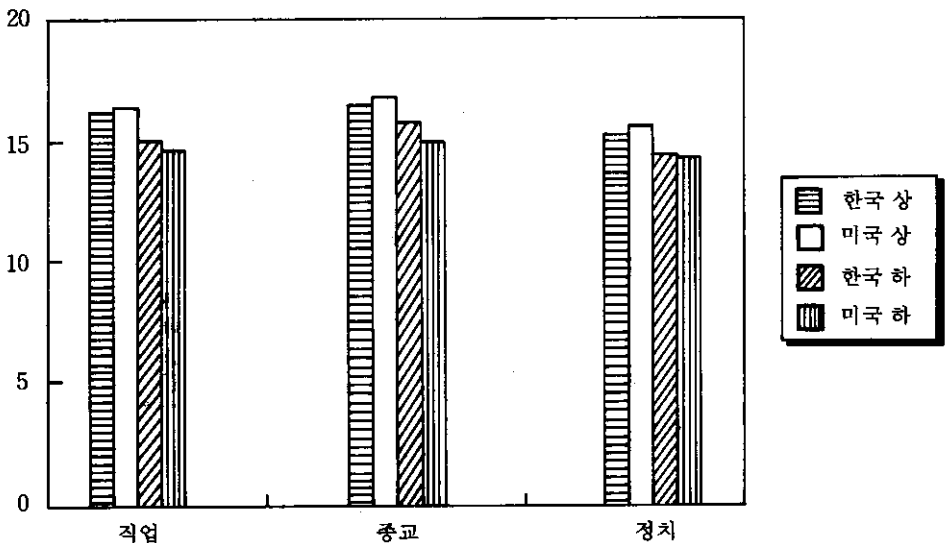


그림 8. 정체감 상하집단별 자기효율성 점수

효율성 $t=5.14(p<.001)$, 종교 자기효율성 $t=2.25(p<.05)$, 그리고 정치 자기효율성 $t=2.40(p<.05)$ 으로 정체감 상하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양국의 정체감 점수가 더 높은 상집단의 학생들이 3개의 영역 모두에서 일관성있게 높은 자기효율성 점수를 나타내었다.

표 8. 한국 대학생들의 직업, 종교 및 정치 자기효율성에 대한 회귀분석

	변인	ΔR^2	R^2	F 값
직업	자율성	0.1644	0.1644	61.7864***
	정체감	0.0275	0.1919	10.6404***
	선도성	0.0046	0.1964	1.7679
종교	자율성	0.0547	0.0547	10.4799***
	신뢰성	0.0108	0.0655	2.0741
정치	자율성	0.0997	0.0676	17.9372***
	친밀성	0.0176	0.1173	3.2146

* $p<.05$, ** $p<.01$, *** $p<.001$

표 9. 미국 대학생들의 직업, 종교 및 정치 자기효율성에 대한 회귀분석

	변인	ΔR^2	R^2	F 값
직업	정체감	0.1454	0.1454	33.6930***
	근면성	0.0231	0.1685	5.4731*
	친밀성	0.0300	0.1985	7.3425**
	선도성	0.0108	0.2093	2.6513
종교	근면성	0.1561	0.1561	35.7134***
	선도성	0.0106	0.1667	2.4393
정치	정체감	0.0676	0.0676	13.1244***
	친밀성	0.0060	0.0736	1.1678

* $p<.05$, ** $p<.01$, *** $p<.001$

4. 심리사회적 발달과 자기효율성의 관계

직업, 종교 및 정치 자기효율성에 대한 EPSI 하위척도들의 설명량을 규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과 표 9는 한국과 미국 대학

생들의 직업, 종교, 그리고 정치 자기효율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표 8에 의하면, 한국 대학생들의 직업, 종교, 그리고 정치 자기효율성에 대해 가장 설명량이 큰 EPSI 하위척도 요인은 일관성있게 자율성이었다. 그러나 미국 대학생들은 표 9에 제시된 대로 직업 자기효율성에 대해서는 정체감, 근면성, 친밀성의 순서로 높은 설명량을 지니고 있었고 종교 자기효율성에 대해서는 근면성이 그리고 정치 자기효율성에 대해서는 정체감이 가장 큰 설명량을 지니고 있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Erikson 발달단계 중 두번째 단계인 자율성 대 수치와 의심이 청년후기의 한국 대학생들의 직업, 종교, 그리고 정치에 대한 자기효율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조적으로 미국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직업과 정치에 대한 자기효율성은 Erikson 발달단계의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에 의해 그리고 종교에 대한 자기효율성은 Erikson 발달단계의 근면성 대 열등감 단계에 의해 가장 설명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IV. 논의

한국 남녀 대학생 442명과 미국 남녀 대학생 229명을 대상으로 Rosenthal 등(1981)이 제작한 EPSI를 사용하여 양국 대학생들의 심리사회적 발달 정도를 측정하고 청년후기의 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직업, 종교 그리고 정치에 대한 개인의 자기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밝혀진 사실들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의 심리사회적 발달

1) 6개의 EPSI 하위척도들, 즉 신뢰성, 자율성, 선도성, 근면성, 정체감 그리고 친밀성에서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얻어 심리사회적 발달이 앞서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한국 대학생들과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 나타난 이와같은 결과는 양국의 양육방식과 교육방식의 차이에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아동의 사회성과 책임감을 길러주고 자아를 신뢰하며 타인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돕는 유도기법 대신에 물리적 처벌이나 애정철회 기법의 훈육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한국문화에서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촉진시키기 어려울 뿐아니라 대학입학을 위한 파행적 교육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서봉연(1988)의 연구에서도 한국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서독의 동년배들보다 더 낮은 정체감을 지니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한국 대학생들의 정체감 성취비율이 일본 대학생들보다 더 높다는 박아청(1984)의 연구결과를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EPSI를 사용하여 같은 동양권 국가들 사이의 비교문화적 연구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2) 하위척도들 중 자율성과 친밀성에서 성차가 나타났다. 남학생들의 자율성 점수가 여학생들보다 높고 여학생들의 친밀성 점수가 남학생들보다 높아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와 성 사이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하면, 미국 여자 대학생들이 근면성, 정체감, 친밀성 하위척도에서 미국 남자 대학생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을 뿐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자율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냄으로써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과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한국 여자 대학생들은 2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근면성, 정체감 그리고 친밀성은 물론,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할지라

도, 나머지 3개의 요인에서도 일관성있게 남자 대학생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심리사회적 발달이 가장 뒤떨어지는 집단을 형성하였다. 그러므로 심리사회적 발달이 가장 앞선 집단은 미국 여자 대학생들이었고 그 다음이 미국 남자 대학생, 한국 남자 대학생 그리고 한국 여자 대학생의 순이었다. 서봉연(1988)의 연구에서는 한국 여학생들이 한국 남학생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고 있기는 하지만, 연령과 사용된 척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와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EPSI를 개발한 Rosenthal 등(198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Rosenthal 등은 9, 10, 11학년의 중등학교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자율성과 선도성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고 여자 청소년들은 친밀성에서만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을 뿐 그외의 하위척도에서는 남자 청소년들이 더 높은 점수를 얻음으로써 성역할 정형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전통적으로 남성들은 자율적, 독립적, 활동적, 경쟁적 등의 도구적 특성을 지니고 여성들은 정서적, 수동적, 의존적 등의 표현적 특성을 지닌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Rosenthal 등의 연구는 성역할 정형과 일치하였다.

비록 한국의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들보다 모든 하위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얻기는 하였지만, 미국 여자 대학생들의 높은 점수는 전통적인 성역할 개념이 후천적 학습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1970년대에 이루어진 개인의 성격이나 정체감 발달에 관한 초기 연구들(Hodgson & Fisher, 1979; Spence & Helmreich, 1978)은 성역할 정형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고하나 1980년대에 이루어진 정체감 상태에 관한 연구들(Waterman, 1985; Bennion & Adams, 1986; Blustein, Devenis & Kidney, 1989)은 남녀의 성차와 정체감 성취와는 상관이 없음을 보고

한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루어진 Willemsen과 Waterman(1991)의 연구는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들보다 정체감 성취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는다고 보고함으로써 본 연구의 미국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1960년대 이후 부터 본격화된 미국에서의 남녀 평등운동은 억압되어온 여성의 능력과 특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한국 여자 대학생들의 저조한 발달은 남녀 평등에 입각한 양육방식과 교육여건에 의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신뢰성, 자율성, 선도성, 근면성 그리고 정체감의 5개 하위척도에서 고학년들이 저학년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친밀성에서만 학년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같은 결과는 개인의 정체감 발달은 발달적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연령증가와 함께 정체감 성취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Marcia, 1966; Archer & Waterman, 1983; Montemayer, 1988; Adams, Markstrom & Atraham, 1987)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자율성과 친밀성에서 나타난 국가와 학년 사이의 2원 상호작용효과를 고려한다면, 친밀성에서만 미국 고학년들의 점수가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성에 대한 친밀성을 표현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방식에서 한국과 미국은 현저한 차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차이는 문화적 차이로 이해되어야 하나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후속연구의 몫으로 남겨 놓기로 한다.

2. 직업, 종교, 정치에 대한 한미 양국 대학생들의 자기효율성

1) 직업, 종교 그리고 정치에 대한 자기효율성에서는 양국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EPSI의 정체감 하위척도에서 한국 대학생들의 점수가 일관성있게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효율성 점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중앙치를 기준으로 정체감 점수를 상하집단으로 나누고 양 집단의 영역별 자기효율성 점수를 차이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상집단의 대학생들이 일관성있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청년후기에 높은 수준의 정체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직업, 종교 그리고 정치에 대해 높은 자기효율성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arcia(1966)는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의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청년기를 직업적 그리고 이념적 전념의 시기로 간주한 Erikson(1963)의 이론을 따라, 청년후기의 대학생들이 정체감을 성취한다는 것은 직업목표를 설정하고 정치적 및 개인적 이념을 확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위기와 전념의 차원에서 직업, 종교, 정치에 대한 정체감 상태를 측정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EPSI 하위척도 중 정체감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들은 직업이나 종교 혹은 정치에 대한 개인의 자기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그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직업, 종교, 정치에 대한 양국 대학생들의 자기효율성은 고학년들의 점수가 저학년들보다 일관성있게 높아 연령증가와 함께 세가지 영역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비록 국민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기는 하였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개인의 자기효율성이 높아진다는 Zimmerman과 Martinez-Ponz(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3) 양국의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직업과 정치에 대한 더 높은 자기효율성을 지니고 있었다. 미국 여학생들의 정체감 하위척도 점수가 남학생들보다 더 높은 데도 불구하고 남학생들의 자기효율성이 더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많은 미국 여성들이 직업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가

사일의 상당부분은 여전히 여성들의 몫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인 자기효율성에서는 남성들보다 더 낮을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3. 심리사회적 발달과 자기효율성의 관계

회귀분석 결과, 한국 대학생들의 직업, 종교, 및 정치 자기효율성에 대해 가장 큰 설명량을 갖는 EPSI 요인은 자율성인 반면, 미국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직업과 정치 자기효율성에 대해서는 정체감이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는 근면성이 가장 큰 설명량을 지니고 있었다. Marcia의 주장대로, 청년후기는 직업, 종교, 정치에 대한 정체감을 확립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세가지 영역의 자기효율성에 대해 가장 큰 설명량을 갖는 하위척도는 정체감일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대학생들과는 상이하게 한국 대학생의 경우 왜 직업, 종교, 정치 자기효율성에 대해 자율성이 가장 큰 설명량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Rosenthal 등(1981)이 이미 지적한 것 처럼 EPSI가 Erikson의 심리 사회적 발달단계 중 처음 6개의 단계만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EPSI의 하위척도를 Erikson 발달단계의 마지막 2개의 단계 즉, 생산성 대 침체와 자아통합 대 절망의 단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참고 문헌

- 서봉연(1988). "한국 청년들의 Identity Crisis에 관한 분석적 연구". *심리학의 연구문제*, 3, 129-160.
- 박아청(1984). 아이덴티티의 탐색. 서울 : 정민사.
- 장휘숙(1993). 청년심리학. 도서출판 : 장승.
- 장휘숙(1993). "자기효율성의 특성에 관한 관련연구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6, 2, 16-27.
- Adams, G. R., & Montemayor, R.(1983). Identity formation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 193-202.
- Adams, G. R., & Montemayor, R.(1988). Patterns of identity development during late adolescence : A descriptive study of stability, progression and regression.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Adams, G. R., Markstrom, C. A. & Abraham, K. G.(1987). The relations among identity development, self-consciousness and self-focusing during middle and late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2, 292-297.
- Archer, S. & Waterman, A.(1983). Identity in early adolescence : A developmental perspective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 203-214.
- Bennion, L. D., & Adams, G. R.(1986). A revision of the extended version of the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 : An identity instrument for use with late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 183-198.
- Blustein, D. L., DeVenis, L. E., & Kidney, B. A.(1989). Relationship between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2, 196-202.
- Cote, J. E., & Levine, C.(1987). A formulation of Erikson's theory of ego identity status paradigm. *Developmental Review*, 8, 147-184.
- Dignan, M. H.(1965).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476-483.
-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

- Norton, New York.
- Erikson, E. H.(1968). *Identity : Youth and Crisis*. Norton, New York.
- Grotevant, H. D., & Cooper, C. R.(1985). Patterns of interaction in family relationship and the development of identity explor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6, 415-428.
- Hodgson, J. W., & Fischer, J. L.(1979). Sex differences in identity and intimacy development in college yout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8, 37-50.
- Marcia, J. E.(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 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551-558.
- Marcia, J. E.(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 Wiley.
- Rasmussen, J. E.(1964). Relationship of ego identity to psychosocial effectiveness. *Psychological Reports*, 15, 815-825.
- Rosenthal, D. A., Gurney, R. M., & Moore, S. M.(1981). From trust to intimacy : A new inventory for examining Erikson's stages of psychosocial develop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0, 6.
- Spence, J. T., & Helmreich, R. L.(1978). *Masculinity and Femininity*. Austin, TX : University of Texas Press.
- Tzuriel, D.(1992). The development of ego identity at adolescence among Israeli Jews and Arab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 5, 551-571.
- Tzuriel, D., & Ben-Moshe(1992). Ego identity and emotional disturbance at adolescence. Paper presented at the 23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Brussels, Belgium.
- Waterman, A. S.(1985). *Identity in the context of adolescent psychology*. In A. S. Waterman (Ed.), *Identity in Adolescence : Process and Contents*. San Francisco : Jossey-Bass.
- Wessman, A. E. & Ricks, D. F.(1966). *Mood and Personality*.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 Willemssen, E. W., & Waterman, K. K.(1991). Ego identity status and family environment : A correlational study. *Psychological Reports*, 69, 1203-1212.
- Zimmerman, B. J., & Martinez-Ponz, M. (1989). Student differences in self-regulated learning : Relating grade, sex, and giftedness to self-efficacy and strategy u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51-59.

The Cross-cultural Study in the Psychosocial Development and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 Comparison of Korean Students with American Ones -

Hwee-Sook Jang · Jacqueline Lerne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Michigan State University

This cross-cultural study attempted to compare the psychosocial development and self-efficacy about job, religion and politics of Korean college students with those of American college ones. EPSI made by Rosenthal et al.(1981) was used for individual psychosocial development and questionnaire for the self-efficacy was constructed. As the results, it was indicated that American students had higher scores in all subscales of EPSI than Korean students. And also American female students had highest scores and followed American male students, Korean male students and Korean female students had the lowest scores among them. In contra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nations in the self-efficacy about job, religion and politics. By the significant grade effect, students in the higher school year had higher self-efficacy scores than the ones in the lower school year. Also male students had higher self-efficacy score than female students. At the same time,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self-efficacy about job, religion and politics must be maintained to acquire higher ego identity in later adolescence because the students with high self-efficacy scores had higher scores in the subscales of identity than the ones with low self-efficacy scores. Among the components of EPSI, autonomy for Korean students and identity and industry for American students were more effective than the other components on self-efficacy about job, religion and politics.

Key Words : psychosocial development · self-efficacy